

중국, 과일 및 견과류 무역동향

리 경 호*

중국의 과일산업에서는 1978년 이래 2단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1단계는 1980년대 초기이다. 중국 정부는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조정을 진행, 많은 과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 단계에서 과일은 줄곧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주로 내수였고 수출은 매우 적었다. 2단계는 1984년 이후로서 중국 정부에서 과일류 전체의 시장을 개방하여 과일 농가의 적극성을 크게 불러일으켜 과일류의 생산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과일 수출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5~2005년 10년 동안 수출량은 연평균 17.4%, 수출액은 연평균 12.4% 증가하였다.

1. 과일 및 견과의 2005년도 무역동향

중국 과일·견과의 2005년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은 378.9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 수출액은 24.08억 달러로 21.9% 증가하였고, 수입은 121.13만 톤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 수입액은 7.61억 달러로 8.9%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16.47억 달러로 28.9% 증가하였다.

1.1. 상품 구조

(1) 과일 수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inghulee@krei.re.kr 02-3299-4374

과일은 2005년 364.8만 톤 수출,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20.4억 달러로 23.6% 증가하였다.

수출상품의 구조를 보면, 신선·냉동 과일의 수출이 203.7만 톤으로 과일 수출총량의 55.8%를 차지하며, 신선 사과, 신선 감귤, 신선 배 등이 중심이었다. 가공 과일 중 과일즙 수출이 70.4만 톤으로 과일 수출총량의 19.3%를 차지하였다. 그 중 사과즙이 과일즙 수출량의 92.5%를 차지하였다. 과일 통조림 수출은 50.9만 톤으로 과일 수출량의 13.9%를 차지, 그 중 감귤 통조림이 과일 통조림 수출의 59.3%를 차지하였다.

표 1 유형별 수출 추이, 2005년

단위 : 만 톤, %

	수출량	수출액 비율
과일 전체	364.8	100.0
신선·냉동 과일	203.7	55.8
과일즙(가공 과일)	70.4	19.3
과일 통조림(가공 과일)	50.9	13.9

(2) 과일 수입

2005년에 114.5만 톤을 수입, 전년 대비 8.0% 증가, 수입액은 6.6억 달러로 12.4% 증가하였다. 수입상품의 구조를 보면, 신선·냉동 과일과 과일즙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선·냉동 과일은 98.4만 톤 수입, 전년 대비 8.3% 증가, 수입액은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다. 과일즙은 6.9만 톤 수입, 전년 대비 18.8% 증가, 수입액은 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하였고, 그 중 감귤즙 수입이 6.2만 톤으로 27.4% 증가하였다. 과일 통조림 수입량은 24.3% 감소, 수입액은 33.4% 감소하였다.

표 2 유형별 수입 추이, 2005년

단위: 만 톤, %, 억 달러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비율
과일 전체	114.5	8.0	6.6	12.4	100.0
신선·냉동 과일	98.4	8.3	5.1	11.4	85.9
과일즙(가공 과일)	6.9	18.8	0.7	22.1	6.0
과일 통조림(가공 과일)	-	△24.3	-	△33.4	-

(3) 견과 수출

견과는 2005년에 14.1만 톤 수출, 전년 대비 12.7% 증가,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13.1% 증가하였다. 견과의 수출은 호두와 밤이 위주로서 밤은 4.0만 톤 수출, 견과 수출총량의 28.1%를 차지하고 호두는 1.4만 톤 수출되어 견과 수출총량의 10.2% 차지하였다.

(4) 견과 수입

견과의 수입은 총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에 6.6만 톤 수입, 전년 대비 16.9% 감소, 수입액은 1.0억 달러로 8.7% 감소하였다. 밤과 피스타치오가 견과류 수입의 주를 이루는데 2005년 수입량은 각각 1.4만 톤, 1.2만 톤이다. 밤과 피스타치오의 수입량과 수입액의 합계는 견과 수입총액의 40%를 점한다.

1.2. 국가(지역)별 수출입 상황

(1) 과일 수출

주요한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지역, 캐나다와 태국이다. 상술한 시장에 대한 2005년의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과일 전체 수출의 78.0%와 76.1%를 차지, 그 중 대일본 수출액은 4.2억 달러로 과일 수출총액의 20.7%를 차지하였고, 대미국 수출액은 3.6억 달러로 17.7%를 차지하였다.

(2) 과일 수입

태국, 미국, 필리핀, 칠레, 브라질,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중국의 과일 수입 주요 대상국이다. 중국이 상술한 시장에서 수입한 과일의 수입액과 수입량은 각각 과일 전체 수입의 86.7%와 92.0%를 차지, 그 중 태국에서의 수입액은 1.8억 달러, 미국에서의 수입은 1.1억 달러이다.

(3) 견과 수출

주요한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중국 대만성, 한국, 홍콩지역, 호주 등이다. 상술한 시장에 대한 2005년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견과 전체 수출의 76.4%와 73.8%를 차지, 그 중 대일본 수출액은 1.1억 달러이다.

(4) 견과 수입

견과는 주로 한국, 미국, 러시아, 이란 등 국가로부터 수입된다. 2005년 상술한 국가에서 수입한 견과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견과 전체 수입의 67.5%와 64.7%를 차지하였다.

2. 과일 및 견과 무역의 특징

2.1. 총량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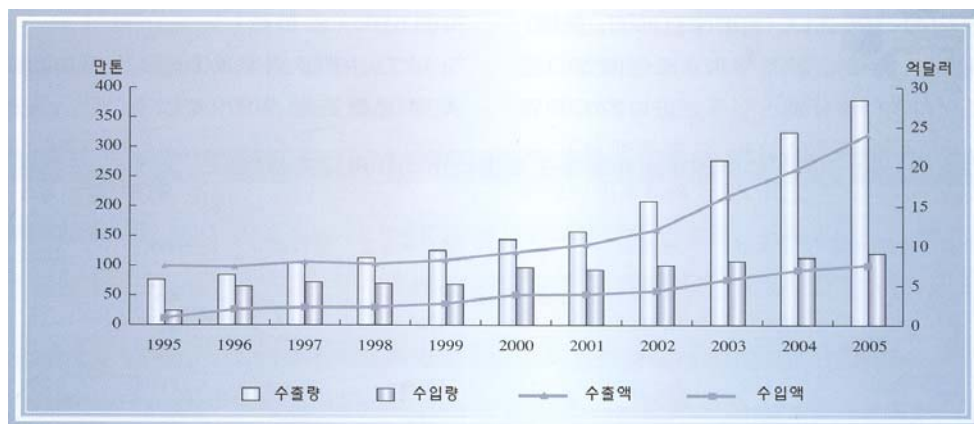
1978년 이래, 과일류의 유통체계개혁은 2개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1단계는 1980년대 초기이다. 중국 정부는 농산물 유통정책을 개혁, 많은 과일류 시장을 개방하였다. 하지만 사과, 감귤, 대추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판매합작사’에서 독자경영하면서 가격을 일괄 관리하였다. 이 단계에서 과일은 줄곧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주로 내수였고 수출은 매우 적었다.

표 3 중국 과일·견과의 수출입 추이, 2005년

단위: 만 톤, 만 달러, %

	수출				수입			
	시장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비율	시장	수입량	수입액	수입액 비율
과 일	일본	39.9	42,162.8	20.7	태국	25.3	18,322.7	27.8
	미국	48.7	35,935.0	17.7	미국	10.9	10,829.2	16.4
	러시아	35.5	15,346.0	7.5	필리핀	30.8	9,343.2	14.2
	독일	17.1	11,239.2	5.5	칠레	5.1	6,171.1	9.4
	네덜란드	14.8	9,299.9	4.6	브라질	5.1	4,997.3	7.6
	말레이시아	20.8	8,954.2	4.4	베트남	25.3	4,709.4	7.2
	인도네시아	20.8	7,772.2	3.8	뉴질랜드	2.9	2,761.7	4.2
	베트남	32.4	7,447.7	3.7				
	중국홍콩	25.3	6,954.0	3.4				
	캐나다	9.9	6,944.2	3.4				
	태국	12.6	6,636.8	3.3				
견 과	일본	4.3	11,187.1	30.1	한국	1.3	2,114.8	20.6
	미국	1.2	4,699.8	12.6	미국	1.3	1,996.3	19.5
	네덜란드	0.8	2,602.0	7.0	러시아	1.1	1,573.5	15.4
	독일	0.7	2,310.7	6.2	이란	0.5	1,234.6	12.1
	영국	0.5	1,919.1	5.2				
	중국대만	1.1	1,696.3	4.6				
	한국	1.0	1,481.6	4.0				
	중국홍콩	0.5	1,443.2	3.9				
	호주	0.3	1,089.0	2.9				

그림 1 중국 과일·견과의 수출입 변화, 199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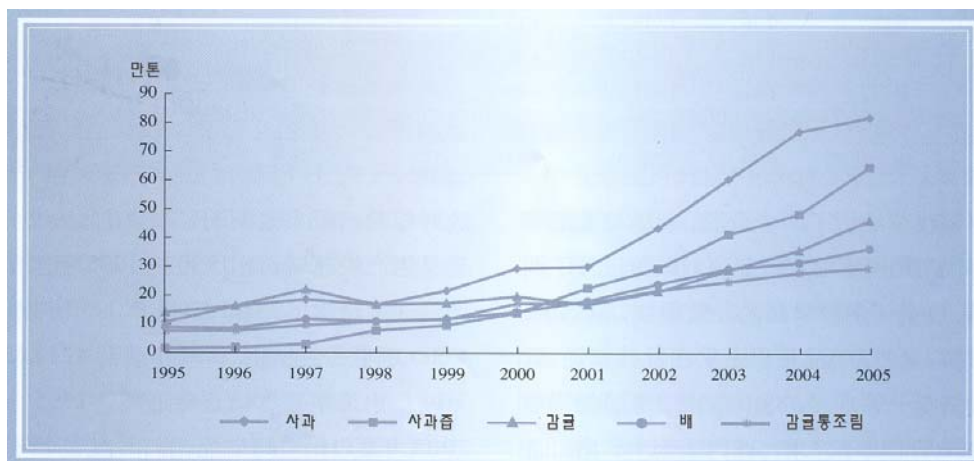
2단계는 1984년 이후로서 중국 정부에서 과일류 전체의 경영을 개방하여 과일 농가의 적극성을 크게 불러일으켜 과일류의 생산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90~95년 사이 과일의 생산량은 연속하여 2,000만 톤, 3000만 톤, 4000만 톤을 뛰어넘었고, 1995년에는 4,214.6만 톤을 기록하였다. 과일·견과의 수출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5~2005년 10년 동안 수출량은 연평균 17.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연평균 12.4% 증가하였다.

2.2. 상품구조

(1) 과일 수출

10년간 신선·냉동 과일과 기타 가공 과일의 수출은 과일 수출총량에서의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고 과일 통조림의 수출 비중은 감소, 과일즙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신선과일의 수출은 지속적 증가 추세, 품목은 사과, 감귤, 배가 위주이다. 과일 가공 제품 중 사과즙, 감귤 통조림의 수출은 계속적 증가를 보여주었다. 사과즙의 수출량은 세계 전체의 절반, 감귤 통조림의 수출량은 세계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렀다.

그림 2 중국 주요 과일 수출의 변화, 1995~2005년



(2) 견과 수출

1995~2005년간 중국의 견과 수출에서 밤과 호두가 위주이고 양적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 중 밤의 연평균 수출량은 3만 톤 이상이었으며 최고치는 2004년의 4만 톤, 호두의 수출량은 연평균 1만 톤으로 안정적이었다.

(3) 과일 수입

1990년대 말 신선·냉동 과일의 수입은 과일 전체 수입량의 95%를 차지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가공 과일 중 통조림의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고, 과일즙의 수입 비중도 증가, 그 중 감귤즙의 수입 증가폭이 비교적 컸다. 신선·냉동 과일 중 바나나, 다래, 포도 등 품목의 수입은 감소, 두리언, 모과, 여지, 용안 등 열대, 아열대 과일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2.3. 국가별 수출입 상황

(1) 수출시장

주로 일본, 미국, 동남아 등 전통 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다원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995~2005년간 과일·견과의 대아시아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77.5%에서 52.9%로 낮아졌고, 미주는 5.9%에서 20.5%로 상승, 유럽은 15.3%에서 23.5%로 상승,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도 다소 상승하였다.

신선 사과, 신선 배, 신선 감귤의 주요한 수출시장은 아시아와 러시아, 캐나다 등이고 사과즙, 감귤 통조림의 주요 수출시장은 북미, 유럽과 일본이다.

(2) 수입 시장

1995년 이래 중국의 과일·견과 수입상대국에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감소 추세였고, 1995년의 66.2%에서 2005년의 54.0%로 감소,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추세였으며, 그 중 미국,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아세안(ASEAN)은 이미 중국의 주요한 무역 동반자이다. 1990년대 이래 쌍방의 무역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1995년의 중국과 ASEAN간 과일·견과 무역총액은 1.63억 달러, 무역량은 32.8만 톤; 2005년의 무역액은 7.6억 달러(중국 전체 과일·견과 무역액의 23.9%를 차지)로 연평균 16.6%의 증가폭을 보여주었다. 무역량은 189.5만 톤(중국의 과일·견과 무역량의 37.9%를 차지)으로 연평균 19.2% 증가하였다.

그림 3 중국 과일·견과의 수출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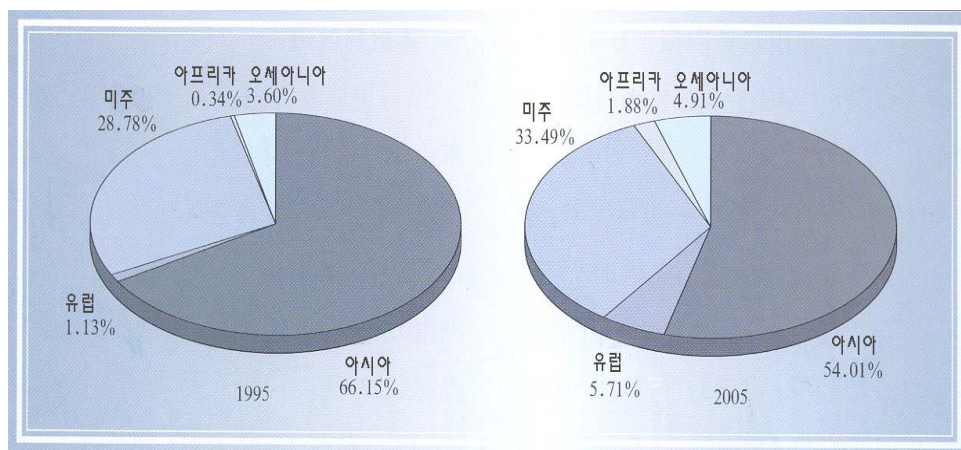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과일·견과의 수입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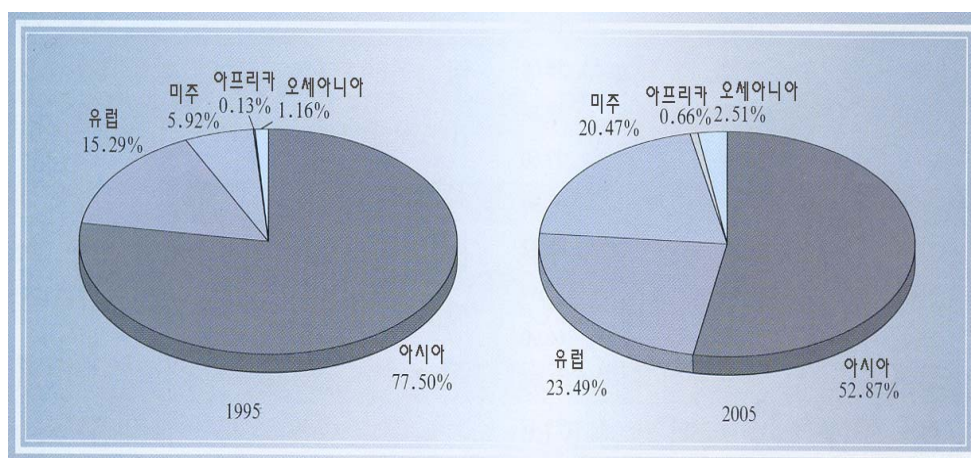


표 4 중국과 ASEAN간 과일·견과 수출입 상황, 1995~2005년

단위: 만 톤, 억 달러

	수출량	수입량	수출액	수입액
1995	17.2	15.7	1.1	0.5
1996	22.3	35.7	1.4	1.0
1997	33.1	32.4	1.7	1.0
1998	28.6	37.6	1.2	1.1
1999	40.2	32.0	1.4	1.1
2000	47.9	46.8	1.6	1.7
2001	45.9	56.5	1.6	2.0
2002	61.6	66.9	2.1	2.2
2003	78.7	70.8	2.8	2.5
2004	92.1	75.5	3.4	3.1
2005	106.4	83.1	4.1	3.5

중국과 ASEAN의 과일생산은 상호 보완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은 온대, 아열대 과일의 주요 산지로서 주로 신선 사과, 신선 배, 감귤 등을 동남아에 수출한다. 2005년 ASEAN에 사과 38.5만 톤, 배 22.0만 톤, 감귤 30.9만 톤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해당 품목 전체 수출량에서 각각 46.7%, 60.0%, 66.3%를 차지하였다.

ASEAN은 세계에서 제일 큰 열대 신선·건조 과일 산지이다. 중국은 ASEAN에서 바나나, 용안,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을 주로 수입하였는데, 최근에는 두리언, 산대나무, 홍모단(紅毛丹) 등 동남아의 과일 특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견과로는 주로 캐슈(cashew)가 수입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ASEAN으로부터 바나나 34.0만 톤, 신선 용안 14.3만 톤, 망고 0.4만 톤, 캐슈 0.2만 톤 수입하였는데 이는 해당 품목의 중국 전체 수입량에서 각각 95.7%, 100%, 87.6%, 93.4%를 차지하는 수량이다.

3. 중국 과일·견과 수출에 미치는 주요 요소

3.1. 유리한 요소

중국은 한온대, 중온대, 난온대, 아열대, 열대 등의 기후대에 걸쳐있어 과일 품종이 다양하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품목·품종 자원, 방대한 생산규모로 국제시장의 영향력이 향상되고 있고 과일·견과의 수출 품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발달한 국가에 비하여 노동력원가가 저렴하다. 과일·견과는 노동집약산업으로서 중국은 발달한 국가에 비하여 노동력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예하면 중국의 사과 생산원가는 미국의 50%, 감귤 생산원가는 미국의 70%이다.

WTO 가입 이후 농산물무역 자유화의 발전은 중국 과일·견과 수출에 좋은 국제환경을 마련하였다. 과일·견과의 수출량은 2001년의 157.9만 톤에서 2005년의 378.9만 톤으로 1.4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폭은 24.5%이다. 수입액은 2001년의 10.2억 달러에서 2005년의 24.1억 달러로 1.4배 증가, 연평균 24.0% 증가하였다. 수출시장은 2001년의 170개 국가와 지역에서 2005년의 231개 국가와 지역으로 36% 증가하였다.

3.2. 불리한 요소

품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이래 국제시장에서는 농산물의 위생, 안전, 포장 등 검역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지고 있다. 중국의 과일·견과산업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국외의 기술, 법규와 표준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과일류는 총체적으로 품질이 높지 못하다.

산업이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중국 과일류 생산과 가공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비교적 작고 생산조건, 기술·관리 수준이 높지 못하며, 정보 서비스 정도와 조직화 정도가 낮은 등 원인으로 생산과 경영의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에서 어려움 많다.

참고자료

“水果堅果”, 「2006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中國農業出版社, 2006), pp.43-49 완역